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보고서

---

## 한국의 사설보호소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 동물복지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제언 -

---



2015년 8월

# 목 차

I. 서론 .....	1
II. 한국 사설보호소 개괄 .....	3
1. 사설보호소의 발생과 역사 .....	3
2. 일반적인 사설보호소의 상태 .....	4
3. 사설보호소의 문제 .....	6
4. 사설보호소의 의의 .....	8
III.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	9
1. 사설보호소 본연의 기능 .....	9
2.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목표 .....	9
3.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경과 .....	10
4.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진행내용 .....	11
1) 사설보호소 지원 기준 설립의 필요성 .....	11
2)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기준 .....	12
3)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항목 .....	12
가. 사설보호소 지원 - 카라봉사대 봉사 활동 내용 .....	13
나. 사설보호소 지원 - 구조 입양 활동 지원 .....	17
다. 사설보호소 지원 - 보호소 이전 지원 .....	19
다-1) 사설보호소 이전 사례 1 - 콩콩이네 보호소 .....	19
다-2) 사설보호소 이전 사례 2 -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보호소 .....	20
다-3) 사설보호소 이전 사례 3 - 정남이네 보호소 .....	20

다-4) 사설보호소 이전 사례 4 - 원정자님 댁 .....	22
라. 사설보호소 지원 - 후원자 보호소 연계 물품 나눔 지원 .....	23
마. 사설보호소 지원 - 애니멀호더의 보호소 해체 .....	25
마-1) 여주 애니멀호더의 사례 .....	25
마-2) 용인 생명이네 보호소 해체 .....	25
5.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소요 예산 .....	26
<b>IV.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성과 .....</b>	<b>27</b>
1. 사설보호소를 기반으로 한 동물보호 활동의 저변 확대 .....	27
2. 사설보호소 동물 입양과 적극적 지원활동의 성공 사례 .....	28
1) 보호소 개체수 팽창 저지를 넘어 개체수 감소 사례 확보 .....	28
2) 적극적 입양과 중성화수술 / 치료 지원으로 보호소 관리자 부담 경감 .....	29
3) 길고양이 TNR 지원으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개체수 안정화 .....	30
3. 애니멀호더의 보호소 해체로 지역사회에 기여 .....	31
4. 재개발지역 유기견들에 대한 선대응적 보호활동으로 야생 들개화 방지 .....	31
5.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한계와 도전 .....	33
<b>V. 동물복지 5개년 계획과 한국의 사설보호소 .....</b>	<b>34</b>
<b>VI. 사설보호소 정상화를 위한 제언 .....</b>	<b>35</b>
<b>VII. 맺음말 .....</b>	<b>37</b>

## 한국의 사설보호소<sup>1)</sup>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 동물복지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제언-

### I. 서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4년 12월 국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서에서 정부는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사설보호소의 임의 구조/보호 및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 단계적 축소/금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사설보호소 및 애니멀호더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사설보호소의 임의 구조·보호 및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 단계적 축소·금지
- 사설보호소 및 애니멀호더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15)

#### 《개선방안 주요내용(안)》

- 보호동물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실시\*하여 마리수 증가 방지
  - \* 사업물량 및 사업비(안) : 1만마리/1,000백만원(국비 50%)
- 보호동물을 지자체 직영 또는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인계 유도
-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수 제한\*
  - \* 예시 : 일정 마리수 이상 소유 금지 또는 세금 부과 등
- 유기·유실동물은 반드시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사설보호소 등이 임의로 구조·보호하는 행위 금지
  - ※ 농식품부·지자체 법인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회원의 가정집을 활용하여 동물보호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1) 사설동물보호소는 민간(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동호회, 개인 등)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 구조 동물들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때 운영주체는 각각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동호회, 개인이 된다. 운영형태로는 자체 재원, 외부 지원, 위탁운영을 겸하며 운영형태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사설보호소는 주로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자체 재원, 동물보호단체, 동호회 혹은 시민들의 비정기적 간헐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미자립 사설보호소를 의미한다.

###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예 산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300	300	300	600	600	600
	○직영 동물보호센터 인건비			450	450	450	450
	○백신, 진단키트 지원			1,890	1,890	1,575	1,575
	○사설보호소 중성화수술			500			
일 정	○동물인수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시행						
	○직영 동물보호센터 규제완화						
	○사설보호소 축소·금지						

출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4, 12.

정부는 1차 사업 계획으로 2016년 10억의 예산(국비 5억지원)을 들여 사설보호소 동물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 계획을 잡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설보호소의 설립을 금지하며 보호 동물들을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소나 위탁보호소 혹은 동물단체 등에 인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애니멀호더와 사설보호소를 동격에 놓으며, 사실상 사설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그동안 자체 보호소를 두지 않는 대신 사설보호소 동물들의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수 증가 방지, 시민봉사활동 연계/ 시설지원 활동/ 입양사업을 진행해 왔다. 2002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은 그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며 2015년에는 대형 사설보호소 2곳의 안정화를 위한 부지 마련, 시설 설치, 동물 포획과 이동 등 이전을 전적으로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라도 국가 동물복지 계획에 사설보호소 문제가 포함된 일은 다행스럽다. 이런 때에, 지속적으로 사설보호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동물보호 단체로서 오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파악된 한국 사설보호소의 실태를 알리고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도전과 문제점을 시민사회 또 행정기관과 공유하는 일은 중요하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사설보호소 관련 정책 방향의 수립을 위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정부 정책과 예산 시민들의 자원 활동이 사설보호소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동물권 인식 제고를 위해 제대로 수립, 배정되어 쓰이기를 바란다.

## II. 한국 사설보호소 개괄

### 1. 사설보호소의 발생과 역사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식용 도살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 시민 인식이 희소한 때는 사설보호소 문제도 없었다. 즉 사설보호소는 시민들의 동물보호 인식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 사설보호소는 1980년대 후반 최초로 생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구에 (재)한국동물보호협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대구 동물보호협회는 도심 주택가 개인주택을 개조한 보호소를 운영중에 있었다. 이후 현재 사설보호소 빅3로 일컬어지는 포천의 애신동산, 애린원, 아산 천사원 등 대형 사설보호소들이 생겨났다.<sup>2)</sup> 이외에도 경기도 이천, 연천 지역 등 전국 여러 지역에 수 십 곳의 열악한 사설보호소들이 생겨났다. 사설보호소는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sup>3)</sup>되어, 거의 예외 없이 열악한 환경으로 전락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바뀌기도 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은 지속되거나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빅3 보호소와 거의 모든 사설보호소 동물들은 적절한 보호 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보호소 부지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예외 없이 사설보호소들이 존재한다. 사설보호소는 국가나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동물 보호의 수준에 만족할 수 없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시도된다. 대개 일반 시민이나 단체 등은 공적인 동물보호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지 못한다. 동물보호 기대치와 현실간의 격차는 보호소 시설과 인력부족에서 비롯되는 동물들의 처우문제 및 법적 공고기간(10일) 이후의 안락사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법정 보호기간 경과 후 안락사’ 문제는 사설보호소 설립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사설보호소 설립 원인은 더욱 복잡적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시작된 사설보호소들은 예외 없이 식용 도살 위기의 개들을 구조하여 수용하는 것이 존립의 이유이며 설립의 동기였다. 버려진 개들을 구조 수용하는 경우도 그 동물들을 ‘식용도살의 위협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정 시기와 최초 법조문으로부터도 확인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되었다. 당시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동물보호법은 명백히 반려동물 식용도살에서 기인되는 동물학대 제어를 주요 법 제정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 집행 의지는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외의 압박에 의해 ‘급조되어 제정’된 동물보호법 조문을 따라가지 못했다. 사실상 잔인한 반려동물의 식용도살을 금지하고 있는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다. 반려동물 식용 도살과 연관된 학대행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동물

2) 애신동산 약 800 두, 애린원 약 2000 두, 천사원 약 300 두 추산.

3) 예로 반송원은 공무원, 달님이네는 애견미용사, 애신동산은 엘리트 무용가, 정남이네는 사우나 사장님 등

보호 활동은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동물을 살리기 위해 저항하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어딘가에서 보호하였으며 바로 그곳이 사설보호소였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당시 평창동 폐가에서 십 여 마리의 개들을 보살피고 있던 현 애신동산 원장 이애신 씨(여)는 말했다. “제가 보살피는 개들을 주변 남자들이 잡아먹고 저 보란 듯이 잡아먹은 개의 머리뼈를 우리 집에 던져 놓았어요.”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견들을 구조하여 보호하던 이00 씨(남)는 “제가 보고 있는데 개를 잡는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개를 제발 나한테 팔라고...”

도살 위기의 개들을 살려야 했기에 ‘살리는 것’이 주요 존립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설보호소들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유기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들이 개고기용으로 도살되는 현실에 더하여 극도로 열악한 초창기 지자체 보호소에서 열악하게 수용되어 폐사되거나 고통사 당하는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시민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초보적이었을망정 사설보호소가 당시 시민들이 ‘동물을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 일반적인 사설보호소의 상태

동물들을 보호 관리하는 데는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동물들을 식용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이용’하는 것과 달리 사설보호소는 동물들을 대상이 아닌 목표로 ‘보호’한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소에서 한 마리의 동물에게 베풀 수 있는 자원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정해져있다. 이 비용은 열흘 동안의 보호와 안락사 처리에 필요한 정도인 약 10만원 내외이다. 사설보호소에서 장기간 동물을 보호할 장소, 먹일 음식, 중성화수술을 포함한 의료지원, 낱알의 관리와 보살핌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자원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설보호소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들의 비체계적인 산발적 자원 활동과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금전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필요한 ‘자원’이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공적·체계적으로 제공된 바도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받아들이고 보자’는 보호소 설립자의 동기와 ‘일단 살려야 한다’는 시민 활동가의 절실한 필요가 만난다.

개인이 돌볼 수 있는 동물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보호의 수준이 상승될수록 보호가능한 동물의 수는 줄어든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표준 제시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동물자유연대의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의 예를 들어본다.

동물자유연대의 보호소는 한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단체 산하의 동물보호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호소는 노킬 정책<sup>4)</sup>을 채택하고 있다. 동물단체 산하의 모범적 보호소를 열악한 사설보호소와 직 대입하여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락사가 없다는 점’에서는 개의 식용 도살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설보호소와 동일한 정책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보호소의 이상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 필요조건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는 고양이 40여 마리를 포함하여 약 220마리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다(2015년 7월 말 현재).

이 보호소에서는 동물 보호 관리는 물론 입양활동과 유기방지 동물학대 방지 시민 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입양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남양주보호소에는 현재 수의사 1인 포함 13명의 활동가가 근무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 보호소에 소요된 총 비용은 합계 약 4억 1천 3백만원이며, 2015년 들어 4개월 동안 1억 3천 여 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자료 출처 : 동물자유연대 후원내역--> 살림공개)

이를 환산하면 동물 한 마리당 소요되는 비용은 연 187만원이며, 활동가 1인이 17마리의 동물을 보호관리하며 입양활동 등을 펼친 셈이다.

동물자유연대의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보호소에서 보듯 동물복지를 확보하고 보호소를 매개로한 동물보호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사설보호소의 경우 설립자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족들의 지원이 있는 경우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개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부 애니멀호더들의 경우는 사회나 가족들과 소원해지면서 더욱 병적으로 동물들을 끌어 모으고, 다시 늘어난 동물들 때문에 더욱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고립된 상태에서 수용된 동물들은 중성화수술의 혜택을 받지 못해 자체 번식하여 더욱 그 수가 늘어나 심각한 과포화 상태에 이른다. 여기에 당장 갈 곳 없는 구조 동물

4) 노킬 정책(No-Kill Policy)- 단순히 갈 곳이 없다는 사유로 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안락사’ 하지 않고 의료적으로 안락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안락사 시행, 우리나라도 길고양이들에 대해 2007(8)년부터 노킬 정책인 TNR 제도를 도입함

을 계속 수용하다보니 결국 보호소 동물들 전체의 복지 상태는 악화일로로 걷게 된다.

과포화 상태에 이른 사설보호소의 문제는 설립자가 애니멀호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 없이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다. 현실감각의 결여와 자신의 능력 그리고 조달 가능한 주변 자원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전체 동물들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전혀 없어 동물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살핌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애니멀호딩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소음/냄새/위생악화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고,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 등 공중방역의 문제가 야기되며, 수용된 동물들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실상의 대규모 동물학대 상황이 벌어진다.

#### 애니멀호딩 발생시 고려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관련 부서

- \* 동물복지와 고통 -->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단체
- \* 소음과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 --> 환경관리부서/보건서비스
- \* 애니멀호더의 정신 건강 관리 --> 사회복지사/보건서비스
- \* 지역사회의 질서와 갈등 --> 경찰/ 행정기관
- \* 인수공통 질병 관리 --> 수의사/보건서비스
- \* 애니멀호더의 가족 또는 어린이의 복지 --> 사회복지사/사회안전망/보건서비스

### 3. 사설보호소의 문제

사설보호소들이 생겨나고 관리부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된 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중성화수술이 안되어 자체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된다. 중성화수술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계속 유입되는 유기동물이나 야생화된 개들로 인한 개체수 증가가 여전히 발생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식용으로 인한 동물학대와 불필요한 동물의 번식·생산 및 매매, 일시적 호기심에 의한 소유와 유기로 이어지는 동물의 남용을 현재의 낙후된 동물보호법제와 행정력으로는 막을 수 없어 사설보호소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인 합의 수준과 동물보호 법제 및 행정력,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 기반 시설이 시민들의 동물보호 수요와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사설보호소에 감당 불가능한 비현실적 역할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평생 살림과 돌봄’을 인적 물적 자원과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설보호소에 기대하다보니 현실과 기대치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 꼭 애니멀호더가 아니더라도 극도로 적은 자원으로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다보니 많은 사설보호소에서 원하지 않는 동물복지 훼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사설보호소 동물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봉사나 금전적 지원을 지속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평생 살림과 돌봄’이라는 역할을 충족하기에는 제공되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제한된 자원마저도 비체계적이며 산발적인 지원에 그치고 만다.

예: 개체수 과다, 개체 식별 불능으로 100% 중성화수술 안됨 --> 새끼 강아지 다수 탄생 --> 예방접종 못함 --> 오염된 환경에서 파보 장염 발생 전염됨 --> 장염에 감염된 강아지들의 치료에 집중 -->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등 치료 자원의 고갈 --> 한쪽에선 탄생하고, 한쪽에선 죽어가는 현실의 반복

무계획적 지원활동으로는 동물복지 향상과 개체수 증가 방지, 나아가 입양활동을 통한 개체수 감소와 자립 보호소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 보호소장 1인이 고립되어 운영하는 보호소, 보호소장이 자원봉사자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독단적인 운영을 고집하는 경우는 그나마 한정된 자원마저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직할 주체조차 없게 된다. 이런 비체계적인 지원은 일차적·직접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더구나 일회성 지원이라도 받기 위해 보호소에 더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게 된다면 수용한 동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후 더욱 더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서 일회성 후원과 구조 동물 입소가 이루어지고, 관리되지 못한 동물들의 수가 늘어나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지며, 지원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끔찍한 악순환 속에서 동물복지가 훼손되는 것이다.

[그림 1 - 열악한 사설보호소 전경]



미비한 동물보호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향상된 동물보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자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동물보호 수준에 만족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의 시민들은 사설보호소 생성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림 2 - 사설보호소 생성 매커니즘]



#### 4. 사설보호소의 의의

한국의 사설보호소는 동물보호활동의 주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사설보호소는 매우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버려지거나 도살위기에 구출된 동물’들과 만나는 장소이다. 이 동물들에 대한 관심은 봉사활동으로 표출되었고 이어 시민들이 더 적극적인 동물보호 활동을 접하고 이후로도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주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 사설보호소의 열악한 상황마저도 버려진 동물들 또는 도살위기에 구출된 피학대동물들의 불쌍한 처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사설보호소 운영자는 처음에는 불쌍한 몇몇 동물들을 거두면서 시작했다가 견잡을 수 없이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스스로의 삶의 여건이나 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하기에는 현실의 급박함이 더 강력히 작용했다. 초기 사설보호소들이 대개 ‘선의’에서 시작되었고 운영자의 ‘희생’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개식용으로 인한 학대와 유기동물 문제를 피부로 인식하고 이후 적극적인 동물보호 세력으로 성장하거나 동물권 인식을 가지게 된 많은 현장 자원활동가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사설보호소를 매개로 한 봉사와 체험으로 동물보호에 필요한 경험과 방법,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터득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후로 세월과 상황이 바뀌면서 초심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 사설보호의 역할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으며 정확한 평가도 아니다.

### III.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 1. 사설보호소 본연의 기능

2014년 한해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8만 1천여 마리로 집계되었다.<sup>5)</sup> 그러나 행정 집계되지 않은 동물들은 그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호법은 지자체에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를 명하고 있으나 동물의 보호보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기동물을 관리 또는 단순 ‘보관’ 하는 차원에 그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한편, 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개입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지자체 보호소의 안락사에 동의할 수 없는 시민들은 유기동물을 직접 거두게 된다. 학대위기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대상황에서 동물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학대대응의 가장 기본이 되므로 역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살리려고 구한’ 피학대동물을 10일 후 안락사 될 지자체 보호소로 보낼 수 없는 시민들은 동물을 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사설보호소를 떠올린다. 그러나 사설보호소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사설보호소들은 유지에 급급하고, 개체수는 대책 없이 불어나며, 주변의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동물보호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사설보호소의 본연의 기능은 공적 동물보호 수준과 현실과의 격차를 메꾸는 것이다. 학대동물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피해 다시 입양과 보호의 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는 선에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이상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후로라도 사설보호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현황 파악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 2.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목표

카라는 직영보호소를 운영하는 대신,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지원이 전무한 한국의 사설보호소를 찾아다니며 사료지원, 중성화수술, 견사보수, 미용봉사 등을 진행하는 ‘카라봉사대’ 사업을 해 오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설보호소 지원 및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이 목표는 시민단체로서 인적, 물적 한계 내에서 더 많은 동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효한 혜택을 주기 위해 그간의 봉사 경험을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5) 2014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표 1 - 카라의 사설보호소지원사업 구체적 목표]

	목표	목표 설정 근거
첫째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개체수를 감소시켜 보호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호소를 축소하거나 가능하다면 동물을 모두 입양시켜 폐쇄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사설보호소는 그곳에 동물들을 수용하여 입양시키기까지 필요한 지원의 조달이 불가능함. 오히려 사설보호소마다 개체수 과다 문제를 안고 있어, 그곳에 더 이상의 동물을 수용하기 보다는 입양활동을 통해 동물의 수를 줄이고 자체 번식에 의한 개체수 증가문제를 막는 게 시급함.
둘째	사설보호소의 존재와 현실을 대중에게 바로 알려 유기동물문제 및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봉사활동을 통해 동물보호 인식을 제고하며 현실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수를 줄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임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생활 환경 내에서 빈발하는 유기동물이나 개별적 동물학대문제로부터 시작됨. 구조적인 동물학대나 법제의 문제까지 인식을 확장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기 이전 동물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당장 시급한 내 앞의 동물 살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들의 현실을 현장체험으로 알게 하고 이를 동물복지 대중 캠페인으로 연계할 필요가 절실함.

### 3.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경과

카라는 이미 구조되어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설보호소의 동물들을 위해 단체 보호소를 운영하는 대신 그 동물들을 먼저 돕기로 했다. 지난 2002년부터 사설보호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소 환경 개선 및 개체수 관리를 위해 보호소 환경 정리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오다가, 2006년에는 '카라봉사대'를 출범했다. 이후 전국의 열악한 사설보호소들을 찾아다니며 사료 지원, 동물들 치료와 중성화수술 지원, 견사 보수 및 시설 지원, 미용봉사 등의 활동을 하며 실태 파악 및 봉사를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은 '카라의료봉사대' 사업을 통해 수의사들의 참여를 이끌고 현장에서의 중성화 수술 및 간단한 치료를 포함하는 의료 지원으로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심화·전문화해왔다.

[그림 3 - 카라의료봉사대 발대식]



현재 우리나라 전역의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는 그 실태가 전혀 파악된 바가 없다. 전국에 사설보호소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사설보호소라고 명명할 것인지조차 정립된 바가 전혀 없다.

다만 카라봉사대를 운영하면서 카라는 전국의 사설보호소에 대한 여러 제보를 받았고, 가능한 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대개 동물이 50마리 이상 집단으로 수용되어 개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시설을 사설보호소로 인식하고 제보와 도움을 요청해 왔다. 그 경험으로부터 도출해 보면, 사설보호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며, 경기도에 이어 경상북도와 울산/대구광역시, 충청남도과 인천광역시로 이어졌다. 전라도와 강원도, 그리고 충북의 사설보호소는 한 두 곳 정도가 파악되었다.

## 4.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진행 내용

### 1) 사설보호소 지원 기준 설립의 필요성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규모는 관리자가 동물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호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선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들이 외부로 탈출하지 않도록 펜스를 만들고, 내부에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격리 후 견사를 보수하며, 추위와 더위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기본 시설이 마련되면 자체 번식에 의한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한 중성화수술,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기본적 검진, 사상충 등의 질병 치료와 같은 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어 보호소에서 직접 구조·치료한 개들을 입양보내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관리자가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호소를 축소한다. 이와 함께 비정기적인 사료지원이나 물품지원이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된다.

상기한 지원을 시민단체에서 후원금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호소 지원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단체의 기준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호소를 축소 및 정상화하여 입양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며, 관리자가 동물들을 걱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별하여 꾸준히 지원해 왔다.

## 2)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기준

- 동물들의 중성화수술이 완료되어 있거나, 단체의 중성화수술 결정에 동의할 것.
- 단체의 지원 이후 협의 없이 개체수를 단 한 마리도 늘리지 않을 것.
- 단체의 입양조건에 동의하고 입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보호소의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사회활동(경제활동)을 할 것.
- 보호소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후원이나 봉사자 모집으로 인한 문제를 단체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할 것.
- 보호소에 직접 현금을 통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동의할 것.

## 3)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 항목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들은 사설보호소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 동물의 수를 줄임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표 2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항목]

사업 항목	주요 운영 내용
카라봉사대	수의사와 함께하는 의료지원과 시민 자원활동가를 조직하여 시행하는 일반봉사를 통해 보호소 환경정비 / 중성화 수술 지원 / 미용과 동물 관리 봉사 / 산책봉사 / 청소 지원 / 겨울나기 준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입양활동지원	보호소에서 입양 가능성이 있는 동물의 구조 입양 진행 / 다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후 입양 진행 / 새끼 강아지 입양 활동 등 보호소 개체수 감소를 위한 적극적 입양활동 진행
보호소 이전지원	기본적인 보호소 유지 관리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물과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호소 부지 마련과 기초 시설지원

물품 나눔 후원	보호소 동물들을 위한 시민들의 사료, 용품, 간식 등 물품 후원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카라에서 후원을 받아 필요한 보호소에 나누어 보냄으로써 보호소와 후원자 연계
동물학대 보호소 해체	동물에게 최소한의 보살핌이 불가능한 애니멀호딩 상태의 보호소를 해체하여 동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설보호소의 현실을 알려 동물유기와 학대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캠페인하고 애니멀호딩에 경종을 울림

### 가. 사설보호소 지원 - 카라봉사대 봉사 활동 내용

2006년부터 시작된 카라봉사대의 자원봉사활동은 2010년과 2011년 들어 의료봉사와 겸하면서 체계화되었다. 그동안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보호소에 가장 절실한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원봉사와 의료지원을 연계하여 지원활동을 펼쳤다. 월평균 약 2회의 대규모 봉사를 조직하여 진행했고 카라의 활동가들은 돌아가며 봉사에 참여했다. 시민 봉사자들의 봉사 신청이 쇄도하여 대부분의 봉사 신청이 초기에 마감되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 봉사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하여 파상풍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안내했다.

[표 3 - 2010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사설보호소 지원 내역]

2010년	유형	보호소명	활동내역
11월	일반	남양주보호소	보호소 이전에 따른 동물들 이동
	일반	반송원	견사 보수, 청소, 환경정리
	지원사업	생명이네보호소	화재복구, 컨테이너 구입 및 견사보수
12월	일반	안성보호소	견사보수, 청소, 환경정리
	지원사업	공공이네보호소	보호소 이전 및 견사 시공 등
2011년	유형	보호소명	활동내역
1월	일반	마석보호소	시설보수 및 환경정리
2월	일반+의료	행복한 보금자리	중성화수술 및 청소, 목욕
3월	일반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견사청소, 환경정리
	지원사업	행강집	보호소 이전 시설비 지원
4월	일반	녹양동	견사청소, 환경정리
5월	의료	마석보호소	중성화수술, 환경정리, 산책
6월	일반+의료	청양보호소	중성화수술, 미용봉사, 견사청소
	일반	마석보호소	예방접종, 환경정리

	지원사업	원정자님 댁	중성화, 견사보수, 시설지원 등
7월	일반+의료	도화동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견사청소
	일반	반송원	견사보수, 미용
8월	일반	행강집	미용, 견사청소
	일반+의료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중성화수술, 미용, 환경정리
	일반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예방약품 지원, 미용, 견사청소
9월	일반	남양주보호소	견사청소, 산책
	일반	안성보호소	미용, 청소
10월	일반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견사청소, 환경정리
	일반	아산천사원	미용, 견사청소
	의료	공공이네 보호소	중성화수술
11월	일반	반송원	견사청소, 환경정리
12월	일반+의료	달님이네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일반+의료	생명이네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2012년	유형	보호소명	활동내역
1월	의료	계수동	중성화수술
	일반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의료봉사, 견사 청소
2월	의료	대구 한나네, 호루라기	중성화수술
	의료+일반	희망이네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3월	의료+일반	애신동산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의료+일반	반송원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환경정리
4월	일반	녹양동	견사청소, 환경정리
	일반+의료	달님이네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5월	일반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견사청소
	일반	행강집	미용, 목욕
	의료	완도	중성화수술
6월	일반	괴산	백신접종, 견사청소
	일반	원정자님댁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환경정리
7월	일반+의료	공공이네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8월	일반	남양주	미용, 견사청소
9월	일반	아지사랑	견사청소
10월	일반+의료	애신동산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지원사업	애신동산	중성화수술 및 견사 지원
11월	일반	원정자님댁	견사청소, 환경정리
	일반+의료	애신동산	중성화수술, 견사청소
12월	일반	달님이네	환경정리
	지원사업	상계동	음치료 및 동물구조



2013년	유형	보호소명	활동내역
1월	일반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식기세척 및 환경정리
2월	일반+의료	양주보호소	식기세척 및 환경정리
3월	일반	애신동산	환경정리
4월	미용+의료	애신동산	의료 및 미용봉사
	일반+의료	여주	의료봉사 및 환경정리
	지원사업	안양	치료지원 및 봉사지원
5월	일반	원정자님 댁	환경정리
	의료	여주	의료봉사
	일반+의료	애신동산	소독 및 의료봉사
6월	의료	루시 고양이마을	의료봉사
	일반	행강집	구 견사 철거 등 환경정리
8월	지원사업	여주	보호소 폐쇄 및 동물 구조
	미용+의료	공공이네 보호소	약욕, 미용 봉사 및 환경정리
	미용+일반	행강집	목욕 및 산책봉사
	일반	원정자님 댁	소독 및 식기세척
9월	일반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식기, 개집, 세척, 바닥 모래 깔기
	의료	계수동	고양이 중성화수술
10월	의료	계수동	고양이 중성화수술
	의료	정남이네	의료봉사

	일반+의료	애신동산	의료봉사, 월동 비닐막 준비
	지원사업	정남이네	보호소 이전 및 견사지원, 중성화수술
11월	일반	공공이네 보호소	환경정리, 구충제, 귀청소
	의료	정남이네 보호소	의료봉사
	지원사업	백운호수	견사지원, 중성화지원
12월	일반	공공이네 보호소	식기세척 및 환경정리
	일반	공공이네 보호소	환경정리 및 쓰레기 수거





2014년	유형	보호소명	활동내역
1월	일반	갯잎, 꽃잎이네	견사청소, 환경정리
2월	일반	공공이네	견사청소, 환경정리
	일반	공공이네	견사청소
3월	의료	원당보호소	중성화수술
	일반	원정자님댁	견사청소, 환경정리
4월	일반	애신동산	미용봉사, 환경정리
	의료	원정자님댁	중성화수술, 환경정리
5월	일반	행강집	견사청소, 목욕, 산책
6월	일반	정남이네 보호소	견사청소, 환경정리
	의료	정남이네 보호소	중성화수술, 백신 접종
7월	일반	원당보호소	청소 및 환경정리
	일반	애신동산	중성화수술, 미용, 환경정리
8월	일반	갯잎, 꽃잎이네	미용봉사, 목욕
9월	일반	공공이네 보호소	견사청소, 환경정리
10월	일반	공공이네 보호소	미용봉사
11월	일반	원정자님 댁	견사청소, 환경정리



2015년	유형	보호소명	활동내역
3월	일반	공공이네 보호소	견사청소, 쓰레기 수거
4월	일반	행강집	청소, 미용, 산책
5월	지원사업	정남이네 보호소	보호소 이전 및 견사지원, 중성화수술
	일반+의료	정남이네 보호소	개들 이동, 견사 청소, 중성화수술
7월	일반	공공이네 보호소	견사청소, 미용, 목욕
	지원사업	원정자님 댁	보호소 이전 및 견사지원



#### 나. 사설보호소 지원 - 구조 입양 활동 지원

사설보호소에서는 중성화수술의 미비로 인해 자체적으로 번식이 일어난다. 카라는 봉사활동 중 입양가능성이 높은 어린 동물들을 구조하여 적극적인 입양활동을 벌여왔다. 보호소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서로 싸우다 다친 동물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동물들도 다수 발견된다. 이런 동물들을 그대로 두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보통은 죽음에 이른다.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경우는 오랜 기간 순화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애니멀호더에게서 구조한 동물들은 야생상태로 성견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순화에 실패하기도 했다. 순화에 실패한 동물들은 카라의 더불어숨 센터 내에서 행동 교육을 받거나 위탁 보호 중이다.

2012년부터 2015년에만 카라의 공격적 사설보호소 동물 구조 사업을 통해 무려 160마리의 동물들이 구조되었으며 이 중 122마리가 반려견으로서 새 삶을 찾았다. 사설보호소의 동물들은 대부분이 견종이 없는 혼혈견들이었고, 많은 수가 다소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어서 오랜 순화와 교육의 기간이 필요한 고난이도 입양활동이었다. 입양 시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정된 환경을 확인 후 진행해 안전을 기했다.

**[표 4 - 사설보호소를 통해 구조된 동물들의 입양 및 위탁 상황]**

공공이네 보호소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입양 개체수	22	4	10	3	39
카라 보호 및 위탁중					3
원정자님 댁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입양 개체수	7	10	22	4	43
카라 보호 및 위탁중					7
달님이네 보호소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입양 개체수	14	4	-	-	18
카라 보호 및 위탁중					-
여주 (보호소 해체)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입양 개체수	5	2	2	-	9
카라 보호 및 위탁중					18
생명이네 (보호소 해체)					
	2014				합계
입양 개체수	1				1
카라 보호 및 위탁중					6
기타 사설보호소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입양 개체수	6	2	2	2	12
카라 보호 및 위탁중					4
<b>사설보호소 구조건 총 160 마리 (2012년 ~ 2015년 현재)</b>					
<b>입양 개체수 : 122 마리</b>					
<b>카라 보호 및 위탁 개체수 : 38 마리</b>					

#### 다. 사설보호소 지원 - 보호소 이전 지원

사설보호소 지원 활동을 해오면서 맞닥뜨린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보호소 대부분이 임시주거 형태이거나 불법 점유, 월세 미납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살던 곳이 재개발 되어 당장 갈 곳이 없거나 개들이 늘어나다보니 주변 민원으로 곧 쫓겨나게 생겼다는 제보 등이 접수되었다.

보호소의 수습,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머무를 안전한 공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가를 피해 점점 더 고립되어 가야했고 대부분의 땅 주인이 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보호소 부지를 찾는 것만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일쑤이다. 단체의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데다 임대한 땅에 시설을 하다 보니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는 너무 짧아 보호소 관리자를 대신하여 계약 기간을 늘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 다-1) 사설보호소 이전 사례 1 - 콩콩이네 보호소

사연: 2011년 말 강제철거위기에 처해 물도 전기도 끊긴 곳에서 70여 마리의 개들과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던 사연. 개들은 보호자인 아저씨의 사랑을 많이 받아 성격이 좋았고 아저씨는 개들을 지킬 의지가 강했다. 당시 단체의 제정으로 감당키 어려운 일이었지만 70여 마리 개들과 아저씨의 고단함을 외면할 수 없어 지원을 결정했다.

[표 5 - 콩콩이네 보호소 이전 진행상황 및 비용]

날짜	진행상황	지원내용
2011. 9	. 강제철거 위기에 놓인 보호소 제보 접수 . 활동가 답사 후 보호소 이전 지원 결정	
2011. 10	. '카라의료봉사대' 수컷 중성화수술 지원	수컷 12마리 수술 완료
2011. 11	. 이전 부지의 토지 계약 및 견사 공사 진행	임대 보증금 : 10,000,000원 견사 및 외부 공사 : 3,374,500원
2011. 12	. 보호소 이전 완료 및 견사 공사 완료 . 임신상태였던 개들의 출산으로 개체수가 약 100 마리로 증가함 . 보호소 모든 개들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 총 15마리 개 양성 반응	
2012. 1~2	. 15마리 심장사상충 치료 진행 . 새끼 강아지들 입양 진행	심장사상충 치료비 : 7,888,500원

2012. 7	. 약 20마리 입양 완료	
이전 준비 기간 : 약 3개월 이전 후 정상화 되는데까지 걸린 기간 : 약 10개월 총 비용 : 21,263,000 (일반 치료비 및 입양사업비 제외)		

### 다-2) 사설보호소 이전 사례 2 -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보호소

사연: 원래 애견 번식장을 하던 사업장이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 애견 번식업에 회의를 느끼고 과감히 사업을 포기, 사설 위탁소 및 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되고 있었음. 여건 상 동물들이 계속해서 케이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보호소 운영을 위해 이전을 준비. 보호소 쪽에서 어렵게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시설비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유기동물 보호소와 반려동물 호텔링 사업을 겸하는 자립형 보호소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카라에서 시설비 마련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표 6 -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보호소 이전 진행상황 및 비용]

날짜	진행상황	지원내용
2012. 3	. 보호소 시설비 마련 모금 시작	
2013. 5	. 모금 종료 . 동물 이동 지원	건사 시공비 : 20,453,500
2013. 6	. 카라봉사대 정기봉사 - 구 건사 철거 및 환경 정리	
2013. 8	. 카라봉사대 정기봉사 - 목욕 및 산책	
이전 후 약 200여 마리 동물들 보호 중. 운영비의 약 90%를 애견호텔 수입으로 조달하는 자립형보호소로 유지되고 있음. 총 비용 : 20,453,500원 (동물병원비와 사료 지원비 제외)		

### 다-3) 사설보호소 이전 사례 3- 정남이네 보호소

사연 : 2013년, 수원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시던 아주머니가 불쌍한 개들을 거두기 시작한 것이 60마리로 늘어나, 하던 일마저 접고 살던 곳에서도 쫓겨나 폐가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사연을 접하고 우선 개들과 아주머니가 살 곳을 지원하면서 시작됨. 정남이네는 아주머니의 성향과 주변 봉사자들의 개입으로 개체수 관리가 되지 않아 2번째 이전을 하게 되었고, 비록 단체의 지원 기준을 거듭 어겨 신뢰가 깨졌으나 아주머니와 개들의 곤란함을 외면할 수 없어 2번째 이전

지원까지 진행. 2015년 7월 현재 2번째 보호소 정상화를 위해 치명적 난관이 있는 상태.

[표 7 - 정남이네 보호소 첫 번째 이전 진행상황 및 비용]

날짜	진행상황	지원내용
2013. 3	. 보호소 제보 접수 . 활동가 답사 후 보호소 이전 지원 결정	
2013. 9	. 보호소 이전지 답사 및 시설 준비 . 이전지에 있던 개농장 개들 매입 지원	컨테이너 구입 및 개농장 개들 21마리 매입 : 7,800,000원
2013. 10	. 견사 공사 완료, 이전 진행	견사 및 설비공사 : 9,660,000원 임차료 : 1,000,000원
2014. 6	. '카라의료봉사대' 정기봉사 - 중성화수술 및 예방접종 지원	
2015. 2	. 보호소 철거 최종 통보	
<p>이전 준비 기간 : 약 6개월 이전 후 정상화 실패, 개체수 꾸준히 증가하여 재이전 진행중 총 비용 : 18,460,000원 (동물병원비와 보호소 비품비, 사료 지원비 제외)</p>		

[표 8 - 정남이네 보호소 두 번째 이전 진행상황 및 비용]

날짜	진행상황	지원내용
2014. 10	. 보호소 이전 준비	
2015. 4	. 이전 부지의 토지계약 및 공사 시작	임대 보증금 : 10,000,000원 성토/환경 정리및 견사공사 : 32,996,700원
2015. 5	. 보호소 이전 진행 중	
<p>이전 준비 기간 : 약 6개월 이전 후 다시 정상화 실패, 보호소 관리 방법 논의 중 총 비용 : 42,996,700원 (동물병원비와 보호소 비품비, 사료 지원비 제외)</p>		

#### 다-4) 사설보호소 이전 사례 4- 원정자님 댁

사연 : 은평뉴타운 개발로 주변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던 아주머니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 후 지원 결정.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동물 유기 문제는 환경스페셜(2012. 5. 30)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특히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짧은 기간 동안 버려져 자체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북한산이나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며 야생화 되고 있어, 사회 안전과 개들의 보호를 위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지자체나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전혀 없었음. 2015년 7월 23일부터 새로 마련한 보호소 부지로 180여 마리 개들에 대한 대규모 포획과 이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생성이 강한 개들로 인해 포획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반복적인 방문과 포획이 시행되고 있음. 전염성 질병에 걸린 개들에 대한 대규모 치료 활동 병행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고 있음.

[표 9 - 원정자님 댁 이전 진행상황 및 비용]

날짜	진행상황	지원내용
2012. 6	. '환경스페셜' 방송 후 제보 접수 . '카라의료봉사대' 중성화수술 진행 . 이전 지원 결정	수컷 약 20마리 수술 완료
2012. 7	. 견사 및 비닐하우스 보수 공사	보수공사 비용 : 7,490,000원
2012. 11	. '카라봉사대' 정기봉사 - 보호소 대청소 및 환경정리 지원	
2012. 12	. 임신상태였던 개들의 출산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 . 포획되지 않은 주변 개들이 중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암컷의 임신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암컷 개들도 순차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했지만 한계가 있음. . 자견들 집중입양 진행	
2013. 5	. '카라봉사대' 정기 봉사 및 지속적인 입양 진행 . 출산율 서서히 감소	
2013. 8	. '카라봉사대' 정기봉사 - 보호소 대청소 및 환경정리 지원	
2014. 3	. 견사 보수 공사 및 견사 지원 . '카라봉사대' 정기봉사 - 보호소 대청소 및 환경정리 지원	보수공사 비용 : 3,366,000원 이동견사 지원 : 1,485,000원

2014. 4	. '카라의료봉사대' 중성화수술 진행	수컷 약 25마리 수술 완료
2014. 11	. '카라봉사대' 정기봉사 - 겨울맞이 비닐막 치기 및 대청소	
2015. 1	. 보호소쪽에서 약 3년 동안 진행한 이주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 이전이 시급해짐	
2015. 3	. 강제 철거 통보 및 단전 통보	
2015. 6	이전 부지 토지계약 및 견사 공사 시작	임대 보증금 : 30,000,000원 견사 및 하우스 공사, 컨테이너 구입 : 48,305,400원
2015. 7	. 보호소 이전 진행 중	
이전 준비 기간 : 약 3년 2015년 7월 현재 이전 진행중 총 비용 : 90,646,400원(동물병원비와 보호소 비품비, 사료 지원비 제외)		

#### 라. 사설보호소 지원 - 후원자 보호소 연계 물품 나눔 지원

2015년 현재 나눔정원은 만 8년의 역사를 가지며, 한번 나눔 행사에 평균 15~30여 건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원 물품은 종류 별로 필요한 곳에 선별하여 지원되며, 1년 평균 10~12회, 월 1회 꼴로 후원 나눔이 이뤄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곳의 보호소에 후원물품이 지원되었으며, 2015년 6월까지 9곳의 보호소에 사료 1,765kg, 간식 6BOX, 이불 28 BOX, 신문 31 BOX 등의 용품이 배송되었다.

[표 10 - 카라 나눔정원 나눔 현황 (2012년~2015년 6월)]

연도	월	차수	보호소명
2012년	1월	51차	김포 달님이네, 용인 생명이네
	2월, 3월	52차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애린원
	4월, 5월	53차	남양주보호소, 김정호 할아버지네
	6월	54차	대구 한나네, 호루라기 쉼터
	7월	55차	원정자님 댁
	8월	56차	공공이네 호소
	9월	57차	남양주보호소

	10월	58차	아지사랑 보호소
	11월	59차	애신동산
	12월	60차	애신동산
2013년	1월	61차	김포 달님이네
	2월	62차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3월	63차	양주보호소
	4월	64차	애신동산
	5월	65차	여주
	6월	66차	계양의 아지네
	7월	67차	루시 고양이마을
	8월	68차	대구 호루라기 쉼터
	9월	69차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10월	70차	나주 할머니댁
	11월	71차	정남이네 보호소
	12월	72차	꽁꽁이네 보호소
2014년	1월	73차	김포 달님이네
	2월	74차	양산 사랑이네
	3월	75차	원정자님 댁
	4월	76차	애신동산
	7월	77차	꽁꽁이네
	8월	78차	김포 달님이네
	9월	79차	아름품
	10월	80차	원당보호소
	11월	81차	원정자님 댁
	12월	82차	꽁꽁이네
2015년	1월	83차	정남이네, 꽁꽁이네, 원정자님 댁
	2월	84차	이용녀님 댁, 원정자님 댁, 루시 고양이마을
	3월~4월	85차	행강집, 원정자님 댁, 달님이네
	5월	86차 / 87차	원정자님 댁 / 원정자님 댁, 달님이네, 정남이네
	6월	88차	원정자님댁, 달님이네

## 마. 사설보호소 지원 - 애니멀호더의 보호소 해체

### 마-1) 여주 애니멀호더의 사례

여주군청의 제보 내용 : 쓰레기로 가득한 집이 있는데 사람은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고, 개들이 쓰레기 더미 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 개들 마리수도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집안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카라 현장 조사 결과 : 카라 활동가가 방문했을 당시 그곳의 실체는 충격적이었고 혼자 사는 아주머니는 일반인과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분이었다. 이런 분들의 특성상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수집하는 것처럼 동물들에 대해서도 남다른 집착이 있어 절대 동물들에게 손을 못 대게 하였고, 장시간의 설득과 수차례의 방문 끝에 동물들에 대한 중성화수술 및 청소 허락을 받아냈다. 하지만 동물 입양이나 추가 중성화수술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시 긴 설득 끝에 동물들을 조건부 양도하겠다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후 한 마리의 동물도 다시 인계하지 않고 모두 보호중이다.

구조 동물 내역 : 총 32마리 구조

치료 내역 : 32마리를 연계병원에 분산시켜 기초 검진은 물론 사상충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마쳤고, 현재 위탁소와 카라 더블어숨 센터에서 분산 보호하면서 입양 가능한 동물에 대해서는 입양홍보를 진행 중이다.

[표 11 - 여주 구조견들 현황]

	카라 센터 보호	위탁소	사망(병사)	입양	계
개체수	5	14	4	9	32

### 마-2) 용인 생명이네 보호소 해체

용인 생명이네 보호소 사연 : 동물을 가엾게 여긴 아주머니가 불쌍한 개들을 거두어 보호하다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남았다. 이후 보호소 화재로 어머님도 별세하시고 이때 보호중이던 여러 마리의 개들도 화재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남은 동물들을 동물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아주머니의 남편이 뜬장의 열악한 상황에서 수용하고 있었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사료지원 등이 되지 않으면 개들을 버리겠다고 했다.

카라 현장 조사 내용 : 보호소 상황 개선을 위해 위태로운 현 부지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전이 필요했다. 하여 이전 부지를 알아보던 중, 시의 개발사업으로 보호소 앞 하천이 공사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소 부지가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그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보호소측과 담당 공무원측의 보상 문제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애꿎은 동물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카라의 결정 사항 : 이 보호소는 대부분이 노령견이고 대형견이었다. 평생을 뜰장에서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던 동물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보호소 관리자분을 거듭 설득하여 결국 생명이네 보호소의 대형견들을 전원 구조함으로써 또 하나의 보호소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구조 동물 내역 : 총 7마리의 노령 대형견 전수 구조

치료 내역 : 7마리를 연계병원 및 카라 동물병원에 분산시켜 기초 검진은 물론 사상충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마쳤고, 현재 위탁소와 카라 더불어숨 센터에서 분산 보호하면서 입양이 가능한 동물에 대해서는 입양홍보를 진행 중이다.

[표 12 - 생명이네 보호소 구조건들 현황]

	카라 센터 보호	위탁소	사망(병사)	입양	계
개체수	1	5	-	1	7

## 5.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소요 예산

사설보호소 지원의 기준과 활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이후인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설보호소의 중성화 등 의료 지원 및 시설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은 4억 1천 7백만원 정도이다.

이 비용에는 한창 이전 진행 중인 원경자님 보호소의 이전시설 준비와 이전을 위한 각종 활동 비용이 합산되지 않았다. 또한 정상화를 위해 이후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희망이네(경남이네) 보호소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합산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사설보호소의 동물들을 구조하여 입양보내기까지 필요한 치료와 보호 비용, 입양활동에 소요되는 미용과 관리 등 일반 비용, 애니멀호더로부터 구조해 끝내 순화되지 못한 야생 개들의 위탁보호 비용과 같은 막대한 비용은 합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봉사와 입양활동에 투입된 카라 활동가들의 활동비 등 인적 자원 비용도 합산되지 않은 직접적 순 투자 비용만 3년 6개월에 4억을 훌쩍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만큼 보호소를 유지 관리하고 수용된 동물들을 입양보내기까지 실로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이 소요된다.

[표 13 -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에 소요된 순 비용 - 치료와 입양활동비 제외]

년도	소용 비용 (단위: 원)
2012년	100,957,809
2013년	83,196,490
2014년	96,412,443
2015년(1월~5월)	68,180,825
<b>합계</b>	<b>416,928,392</b>

#### IV.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성과

##### 1. 사설보호소를 기반으로 한 동물보호 활동의 저변 확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카라의 사설보호소 봉사 활동은 월 1.5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번의 봉사에 카라 활동가 평균 6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의사들의 헌신적 의료봉사 자원활동으로 대규모 중성화 수술 및 예방접종과 같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적이며 긴급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보호소 동물들 위생 관리의 기본인 미용 봉사에도 전문 미용사들과 미용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매 봉사마다 시민 봉사자들의 참여 요청이 쇄도하여 봉사 활동 일정이 공지되면 즉시 봉사자 인원이 모집될 정도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한 번의 봉사에 최소 10명의 봉사자를 모집했으며 대규모 봉사가 필요한 경우는 20명 정도를 모집했다. 이호리 씨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도 봉사에 참여하며 동물보호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는데 기여했다.

##### <전문적 의료봉사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의 봉사활동과 창출된 주요 효과>

-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월 평균 1.5회 대규모 봉사 활동 지원(2011년부터 최소 83회 봉사)
- 참여인원 : 카라 활동가 평균 6명 X 83 여회 = 연인원 500명 참여
- 참여인원 : 시민봉사대 평균 15명 X 83 여회 = 연인원 1,245명 참여
- 수의사참여 : 의료봉사 활동시 평균 3명 X 40회 = 연인원 120명 참여

- 봉사후기 게시글 평균 조회수 : 게시글 하나당 최소 2,000회 조회, SNS 등으로도 봉사활동의 내용이 다수 확산됨. 이를 통해 수 십 만명의 시민들이 카라의 봉사활동과 사설보호소의 현황에 대해 접함
- 성악가 조수미 씨, 가수 이효리·이상순 씨, 배우 조윤희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봉사활동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효과적인 대(對)시민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및 동물보호 의식 함양에 기여
- 내츄럴발란스, 메리얼 코리아, 네슬레 퓨리나코리아 등 대형 동물사료 및 동물약품 회사의 적극적인 봉사와 기부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동물 관련 기업의 CSR을 통한 사회기여 및 참여 기회 마련

[그림 4 - 조수미, 이효리 씨의 봉사활동 모습]



## 2. 사설보호소 동물 입양과 적극적 지원활동의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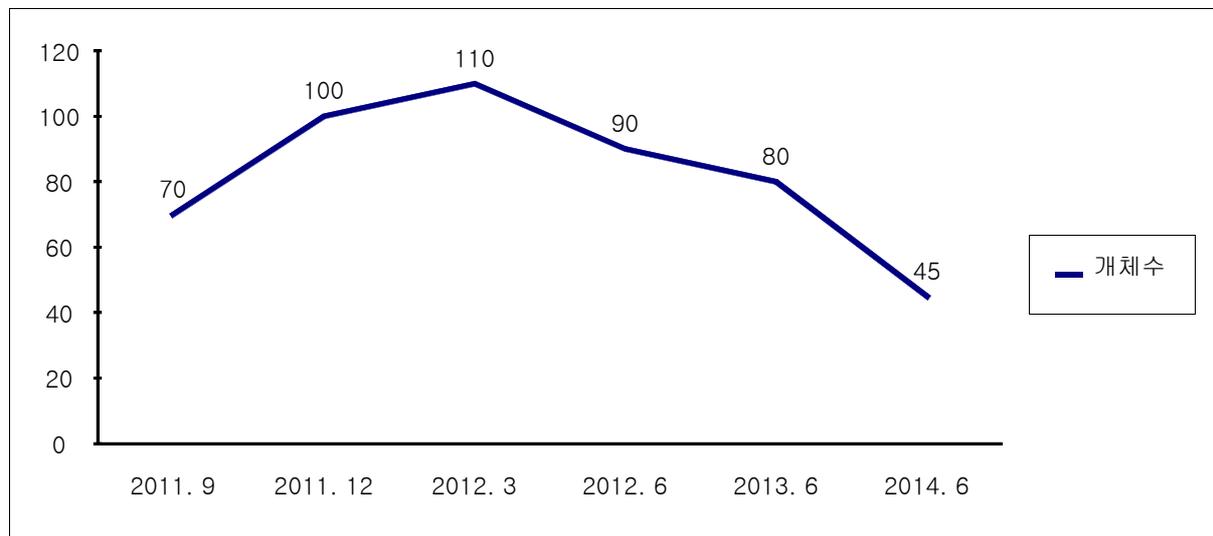
### 1) 보호소 개체수 팽창 저지를 넘어 개체수 감소 사례 확보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으로 가장 극적으로 보호소의 상황이 개선된 사례로 공공이네 보호소를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설보호소는 개체수 팽창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이네 보호소는 최초 2011년 9월 70여 마리의 개들 전수가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지 않았다. 강제 철거 위기에서 보호소 이전 지원을 결정했고 이전 직후(2011년 12월) 임신중이던 개들의 출산으로 최대 110 마리까지 개체수가 늘어났다.

6) 봉사 횟수 83회는 월 평균 봉사횟수를 1.5회로 잡았을 때 동기간 계산상으로 나온 봉사회수이며, 실제 봉사활동 횟수보다 적은 수치임. 의료봉사와 일반봉사, 혹은 일반봉사와 의료봉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참여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봉사 회수와 매회 평균 참여자 수로 대규모 봉사 횟수 집계함.

이후 자견들의 집중 입양과 중성화수술로 2013년 6월, 이전당시 수준인 70마리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었다. 이후 약 1년 동안 개체수가 70마리로 유지되다 지속적인 입양활동으로 이전 후 약 2년 6개월 만에 개체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5년 7월 현재까지 약 40 마리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기본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비정기적인 카라 봉사대의 봉사와 치료 지원으로 보호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차트 1 - 꿩꿩이네 보호소 개체수 추이]



## 2) 적극적 입양과 중성화수술 / 치료 지원으로 보호소 관리자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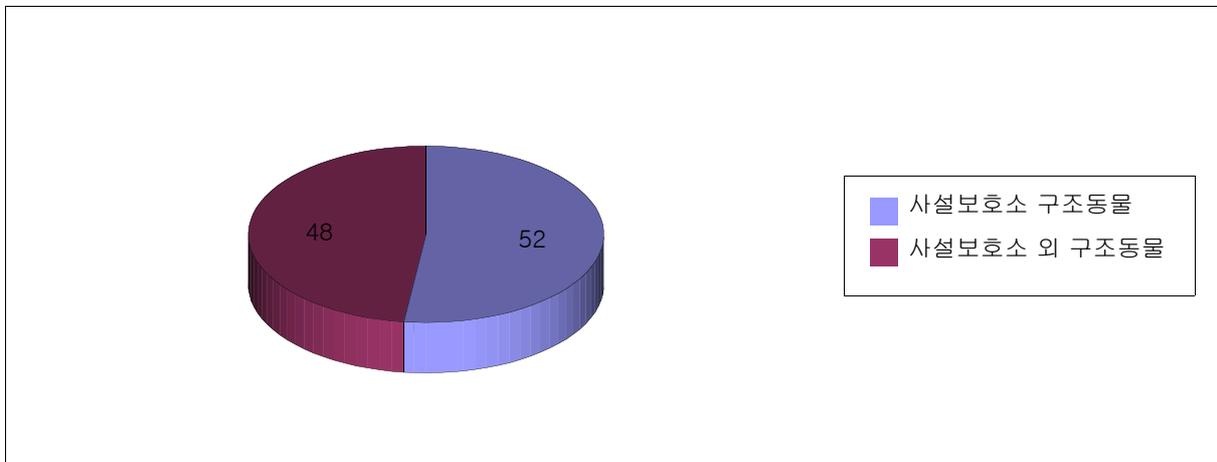
꿩꿩이네 이외에도 카라는 지속적으로 많은 동물이 유기되어 자체 번식하던 은평뉴타운 재개발 지역 유기동물들 60여 마리를 입양 보내고 포획 가능한 동물들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폭발적인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의 야생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달님이네 보호소의 경우도 18 마리의 동물들 입양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보호소 동물들에 대한 관리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 동물들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입양 보낸 동물들 중 다수가 심각한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카라의 입양활동이 아니면 거의 입양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혼혈종 개들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이런 동물들은 관리와 보호의 손길이 많이 요구되는 동물들이었다. 전염성 피부질환이나 파보장염 등을 앓고 있던 동물들을 전체 개체군에서 격리하여 치료 후 입양 보내는 활동은 단지 구조된 동물 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 은평뉴타운 재개발지역의 버려진 유기견들이 낳은 2세들]7)



[차트 2 - 카라 입양 개체수 중 사설보호소 구조동물 비율. 입양 개체수 234 중 (2012년 ~ 2015년 현재) 약 52%가 사설보호소 구조동물임]



### 3) 길고양이 TNR 지원으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개체수 안정화

2012년 카라는 애신동산 등 지속적으로 새끼들이 태어나고 있는 보호소의 중성화를 적극 지원했다. 2012년 1월, 그리고 2013년 9월과 10월에는 재개발로 대부분 이전한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계수동의 길고양이들에 대해 전면적인 집중 TNR을 지원하였다. 재개발과 동시에 갈 곳 없어질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고통 받는 동물들의 수가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성화수술이 시급했다.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들은 재개발과 동시에 굶주림, 질병, 사고, 서식지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해 나감으로써 영역 다툼과 급작스러운 개체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었다. 아직 이전하지 못한 연로한 지역 주민 두 분이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었으나, 중성화수술을 위

7) 발견당시 심각한 피부질환에 걸려 있었으나 모두 구조되어 치료 후 입양을 가거나 현재 입양 대기중이다. 중간에 보이는 바둑이는 현재 입양카페 아름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루미'이다. 양쪽 두 녀석은 모두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갔다

해 고양이들을 포획하여 TNR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카라 의료봉사대의 찾아가는 TNR로 이후 이 지역은 급격한 개체수의 증가 없이 간헐적인 사료 지원으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다.

### 3. 애니멀호더의 보호소 해체로 지역사회에 기여

카라는 애니멀호더에게 억류되어 있던 여주 보호소의 32마리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소를 해체했다. 이 보호소의 동물들은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물론, 사람의 손길과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해 전원이 심각한 야생 상태였다. 지역 담당 공무원은 애니멀호딩의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카라는 쓰레기더미로 발 디딜 곳 없는 호더의 집을 정리하여 지역사회의 불편을 해소했고, 고통에 처해있던 동물들을 아주머니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해 오고 있다.

### 4. 재개발지역 유기견들에 대한 선대응적 보호활동으로 야생 들개화 방지

재개발로 인한 동물 유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이전에 마당이나 텃밭 등 실외에서 키우던 진돗개, 발바리 등 중형견 중에 영리하고 생존력이 강한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인근 야산으로 유입되어 야생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동물들이 사람을 먼저 위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에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협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기도 한다. 이 개들은 등산로 인근에서 동정하는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산에 은신하며 새끼를 낳기도 한다. 북한산을 타고 다니다 마을로 내려와 길고양이들을 해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은 동물들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무책임에 있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리고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제시된 바 없다. 서울시는 동물 인수제를 통해 포기되는 동물들을 인수받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재개발지역에서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사전 ‘동물등록’과 ‘직접 보호소 인계’ 그리고 ‘일정기간 보호 후 안락사’를 전제로 하는 인수제에 포섭되어 관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나마도 서울시 이외에는 아예 대책이 없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버려지고, 지금도 야생화 되어가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카라는 은평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버려진 많은 동물들이 야생화 되어가며 자체 번식하는 지역의 유일한 보호소를 그동안 관리해왔다. 중성화수술과 시설 지원을 통해 이 동물들을 안전한 곳에 수용하기까지 개체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했으나, 새로 버려지거나 이미 야생화된 동물들의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전할 부지를 어렵게 마련하고 야생화가 진행된 이 동물들을 구조 또는 포획하여 옮기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동안, 관할 관청인 고양시청이나 인근 소방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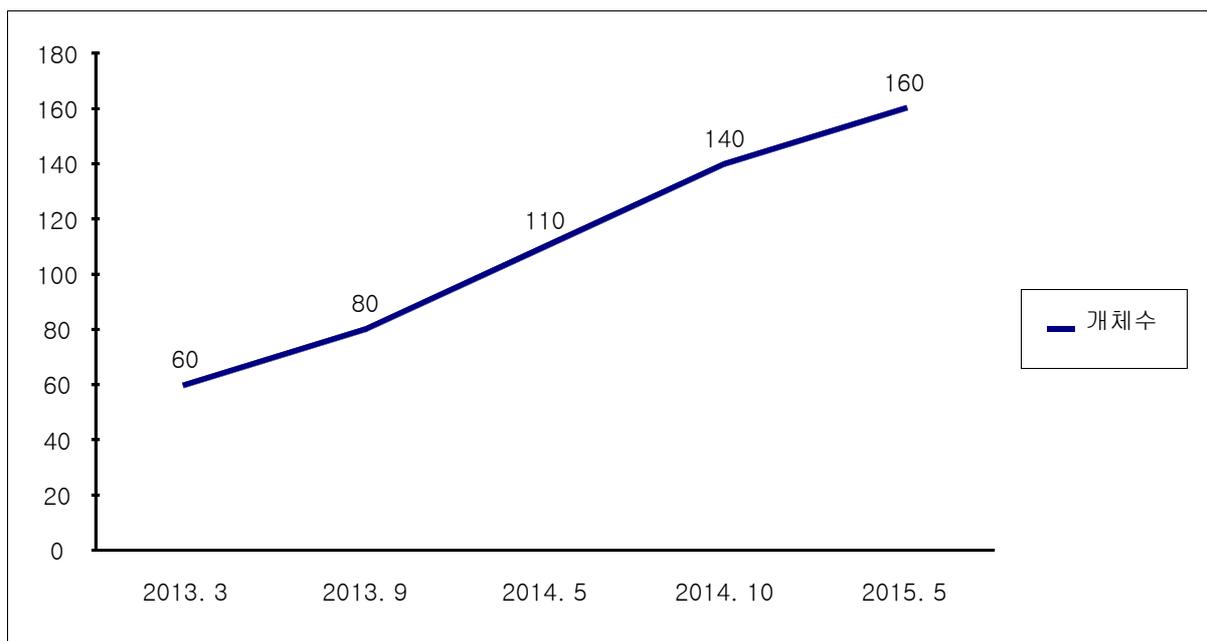
## 5.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의 한계와 도전

전국적으로 최소 수십 곳의 사설보호소가 존재한다. 7월 한 달에만도 열악한 상황의 사설보호소를 도와달라는 제보가 2건이나 접수되었다. 이 두 사례는 각각 40마리, 100여 마리의 개들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주변의 민원과 갈등, 열악한 수용시설, 질병에 걸린 개들, 경제적 어려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여건 등 여타 사설보호소가 겪는 문제들을 100% 재현하고 있었다. 이미 한계에 이르러 대형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설보호소를 개선하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일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카라는 현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사설보호소의 정상화에 온전히 자원이 쓰이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대표적인 시행착오의 사례로 희망이네(구 정남이네)보호소를 들 수 있다. 1차 보호소 지원 후 얼마 가지 않아 개체수 과다 문제로 민원이 유발되었고, 땅 주인과 보호소 관리자 사이에서 카라는 동물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조율에 사력을 다해야 했다. 단체 지원 기준을 어겼지만, 이미 개체수가 많이 증가된 상태로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외면할 수 없어 지원중단을 철회하고 이전을 지원하게 되었다.

[차트 3 - 희망이네 (구 정남이네) 보호소 개체수 추이]



### 〈희망이네 (구 정남이네) 보호소의 상황과 문제점〉

- 제보당시(2013년 3월) 약 60 마리의 개들과 폐가를 전전 중. 개들과 아주머니의 안전을 위해 보호소 지원 결정됨.
- 이전과 동시에 이전지 개농장 개들 21마리 매입(2013년 9월)으로 총 80 마리가 됨. 이후 아주머니가 뒷집 개농장 개들 26마리 추가 매입 지원을 요청해 와, 개농장 폐쇄를 전제조건으로 매입 지원하여 총 110 마리를 유지했음.
- 이후 보호소측에서 단체를 기망하여 개인구조자들의 개들을 후원 유치를 위해 받아들이는 등 몰래 개체수를 늘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중성화수술이 제때 시행되지 못해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 약 45%가 증가한 160마리로 최종 파악됨.
- 보호소 관리자 아주머니가 애니멀호더 성향을 나타내며 개체수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

이전 후 보호소 안정을 위해서는 단체와 보호소 관리자 간에 긴밀한 협의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카라와 보호소 관리자 아주머니와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보호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체계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물 관리를 전담해 줄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전담 인력이 확보 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막대하다. 보호소 안정화 후 사력을 다해 입양 활동을 한다고 해도 과반수의 동물이 개농장 출신으로 입양이 어려운 대형견들임을 감안하면 결국 최소 100여마리의 개들은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단체가 보살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의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의 사례에서 보듯, 바람직한 수준의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현재의 동물보호법과 제도의 보호 수준에서 배정된 자원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사설보호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사설보호소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도 당연히 이런 법적·제도적·사회적·물적 한계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 V. 동물복지 5개년 계획과 한국의 사설보호소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중에는 사설보호소 정상화를 위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사설보호소를 그저 ‘자체 번식으로 인해 동물들이 늘어나는 문제적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보호소는 병적 애니멀호딩과 거의 동격으로 치부되어 이후 축소·금지되어야 할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중성화수술 지원 계획 이외에는 사설보호소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 중성화 수술 이외에는 배정된 예산도 없다. 그러나 사설보호소와 애니멀호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사설보호소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로서 시민들의 지원과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그동안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카라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개식용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조되어 시민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 동물들을 열흘까지만 살려두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직영 혹은 위탁보호소)에 수용하길 원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재개발로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이 유기하는 동물들과 장애나 질병상태의 동물들의 보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긴 기간 동안 보살핌을 줄 수 있는 보호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이 기간 내에 지자체 산하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보호교육, 피학대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유기동물 입양 및 유기동물 구조가 가능한 곳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사설보호소 축소 및 폐쇄는 가능할 것이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러나 단 5년의 기간 동안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가 시민들의 동물보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가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사설보호소의 동물들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단순 수용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장기간의 돌봄과 수준높은 입양활동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사설보호소의 수많은 동물들을 수용한다는 것 역시 더욱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다. 이미 동물보호단체들은 수용가능한 한계선까지 동물들을 수용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을 해 온 카라의 경우에도 이미 비용과 시간, 인적 자원의 최대한을 소모하고 있으며, 다른 곳을 더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VI. 사설보호소 정상화를 위한 제언

무책임한 유기, 무자비한 도살 혹은 학대의 위기에 처하는 동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사설보호소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동물보호 기능'이 법적·제도적 보호체계의 향상으로 충족될 수 있다면 시민들의 사설보호소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설보호소로 유입되는 동물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어 한정된 예산이 적은 수의 동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설보호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설보호소 본연의 기능은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 기간이 종료된 동물들에게 추가적인 입양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보호 활동을 바탕으로 동물유기 방지 및 입양활성화 캠페인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사설보호소 수용 동물들의 복지훼손 문제와 주변 민원 야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설보호소가 우리사회의 동물보호의식 발전에 기여해 온 나름의 역할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사설보호소 금지를 말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사설보호소의 축소와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선결 조건**

: 궁극적으로 동물보호 체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사설보호소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현재 존재하는 사설보호소들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보호소의 축소를 위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동물보호 체계**

: 동물 번식·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치 및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유실과 유기 방지를 위한 소유자 책임 강화 및 실질적 규제, 개식용 금지

[그림 7 - 동물보호체계의 수준과 사설보호소 수요의 상관관계]



[표 14 - 사설보호소 단계적 축소와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

역할분담자(스테이크홀더)	역할과 기능
정부/국회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에 부합하는 직영 동물보호 센터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 수립 / 개식용금지를 위한 법 제정 노력 / 동물번식 판매업 규제강화/ 동물복지 예산 확보
지자체(의회) /사법기관	동물보호법 강력히 집행/ 동물유기나 학대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응과 활발한 지역 동물보호 입양활동 / 행정구역내 불법 번식장 혹은 개사육장의 실태 조사와 행정집행/ 지역기반의 유기 동물 입양등 동물보호 활동 활성화 / 사설보호소와 지역 봉사활동 연계 활동 전개

<p><b>사설보호소 관리자</b></p>	<p>동물들의 최소한의 복지 확보 / 철저한 중성화 수술과 지역 봉사활동 유치 / 주변 민원 발생소지 없도록 청결한 보호소 관리 / 보호소 수용 가능 동물 수에 대한 판단 하에 합리적인 동물보호 활동</p>
<p><b>시민</b></p>	<p>사설보호소는 동물을 데려다 주는 곳이 아니라 보호소의 동물들을 데려다 입양시켜 도와주어야 할 곳이라는 인식을 가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사설보호소 동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 지자체나 국가에 더 향상된 법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청/ 자신의 동물보호 활동이나 사설보호소 지원 활동을 주변과 공유함으로써 유기·학대동물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에 기여</p>
<p><b>동물보호단체</b></p>	<p>국민들의 전반적인 동물보호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동물보호 법제의 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입법 활동 전개 / 개식용 문제 대응으로 구조적인 반려동물 복지훼손 문제에 대응하여 사설보호소 수요 감소에 기여/ 사설보호소 동물들을 위한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시설지원/ 사설보호소 동물들의 중성화 수술 지원 / 사설보호소 동물들의 입양 연계로 보호소 개체수 감소에 기여</p>

## Ⅶ. 맺음말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역사에서 사설보호소가 수행해 온 중요한 기능이 있다. 지금 그 동기와 기능을 부정하고 역기능만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사설보호소를 매개로 노력해 온 많은 시민들의 활동과 열정을 폄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보호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설보호소의 개선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사설보호소의 정상화 및 자립보호소화를 위해서는 사설보호소로 더 이상 동물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평생 걱정안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사람들만 동물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동물들의 번식과 판매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반려동물 평생 보호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주거 환경 변화와 평생 삶의 주기에 대해 고려한 후 반려동물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동물보호 교육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번식자들이 키울 수 있는 동물의 상한을 정하여 규제하고, 인터넷 퍼피 밀을 규제해야 한다. 시민들이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키우는 동물들을 반드시 중성화하도록 캠페인 하며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법적 강제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상기한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법과 제도로 정착될 때, 비로소 사설보호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현재 있는 사설보호소도 자립보호소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선 수많은 동물들이 수용되어 동물 수용소로 전락한 사설보호소의 동물과 이들을 보호하는 관리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한다. 2014년 발표된 국가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는 사설보호소 동물들의 중성화 수술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 비록 사설보호소를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획일화해서 보는 문제가 있었으나 초보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동물보호 예산에서 사설보호소 중성화 예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해 예산 책정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행 주체가 이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설보호소의 동물들을 무한정 동물복지의 사가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사설보호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후 사설보호소를 어떻게 관리하며 그곳에 수용된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문제를 직시하고 상처를 드러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합리적 기준과 방법에 의한 한국 사설보호소 실태조사가 가장 먼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때 현재 수용중인 동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사설보호소의 축소와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사회적 합의 수준, 그리고 현재의 동물보호 법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카라가 진행해 온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이 사설보호소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개선방향 정립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